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군산시, 8월까지 2개반 4명 점검반 구성 폐수 무단방류 등 특별감시·단속

군산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취약시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범죄 위반이 상승하는 시기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오는 8월까지 실시되고,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 교차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강우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하며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어 오염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망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 454-3400), 당직실(☎ 454-4222)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장 현 기자

자동차 시트봉제 2기 교육생 모집

ECO, 8월 16일까지 선착순 15명… 1기 12명 수료·10명 취업

ECO융합섬유연구원은 고용노동부,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자동차 시트봉제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봉제교육생 20명 중 15명이 자동차 시트봉제 기업인 ㈜용산에 취업하여 88%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

올해에도 자동차 시트봉제 1기 교육은 4월24일부터 10주간 진행하였다. 7월7일(금) 수료식에서 교육생 15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12명이 수료하였고 그 중 10명이 ㈜용산에 취업했다.

교육은 취업소양, 직무기초, 직무응용, 직무심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교육내용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에서는 1기 교육에 이어 자동차 시트봉제 2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은 자동차 시트봉제에 관심있는 도내 미취업자로 오는 8월 16일(수)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무료(수강료와 재료비)이며,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교육수당으로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자동차 시트봉제 2기 교육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CO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집중 호우 피해농가 방문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6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일부지역에 오후6시부터 약1시간30분 동안 150mm 가까운 많은 비가 퍼부으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용안면 144mm, 망성면 119mm, 용동면 112mm의 비가 쏟아져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 침수가 많이 발생했다. 3개면에서 수확을 앞둔 수박, 토마토, 멜론, 상추 등 123농가 1,016동(72.5ha)의 비닐하우스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이춘석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등은 용동면과 용안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100여명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지역사회 & 기업과 함께하는 WINNER LINC+ 창의대첩' 개최

"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아이디어 돋보여"

이매진트랙 대상 '길신' 팀
메이킹트랙 대상 '돈펑' 팀

원광대학교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무박 2일 동안 교내 60주년 기념관에서 몰입형 창작프로그램인 '2017 1st 지역사회 & 기업과 함께하는 WINNER LINC+ 창의대첩'을 개최했다.

원광대학교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무박 2일 동안 교내 60주년 기념관에서 몰입형 창작프로그램인 '2017 1st 지역사회 & 기업과 함께하는 WINNER LINC+ 창의대첩'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도, 익산시가 후원하고, 원광대 LINC+사업단이 주관했으며, 지역사회 및 산업체 수요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을 통한 창조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2015년 무박 2일 창작마라톤인 위너링카톤으로 시작한 창의대첩은 이번으로 4회를 맞이했으며, 올해는 8시간의 사전교육을 거쳐 아이디어 기획의 이매진트랙과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한 메이킹트랙 출전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매진트랙에 22개 팀, 메이킹트랙에 27개 팀이 참가했다.

무박 2일 동안 학생들은 한방 반려견 간식과 자외선차단쿨링헤어미스트, 수저 일체형 뚜껑이 내재된 포장용기 아이디어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창의대첩에는 제일전자, 알에스티, 오피엘이디, 시스젠, 브릴링스, 리챠드프로헤어 등 산업체가 참여해 산업체 수요 아이디어 및 시제품 9건을 선정하고, 특별기업상을 수여해 관심을 끌었다.

경연 결과 이매진트랙 대상은 'TRIZ발상기법이 적용된 신발 탈부착형 네비게이션' 아이디어로 마케팅 전략을 발표한 '길신' 팀, 메이킹트랙에서는 '공구 없이 손으로 조립할 수 있는 넉다운 체어' 시제품을 선보여 최고점을 기록한 '돈펑' 팀이 선정됐다.

이매진트랙 심사를 맡은 브릴링스 김명삼 대표는 "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작품들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타깝게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뚝심으로 아이디어에 매진하면 더욱 멋지게 발전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찾은 김도종 총장은 "학생들의 눈빛에서 창의대첩에 대한 열정을 보았다"며, "앞으로 창의대첩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의 창의아이디어 장려 교육을 통해 창·취업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원광대 LINC+사업단은 학생들이 기수별 모임 등을 통해 창작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후원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 및 캡스톤디자인을 통한 창의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산업현장 수요의 아이디어 및 창의아이템을 공모하는 글로벌 캡스톤디자인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해경, 무허가 조업 멸치잡이 어선 3척 적발

군산 앞바다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면서 무허가로 조업에 나선 어선 등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저녁 10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으로부터 약 7.4km 떨어진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7.9t급 어선 등 3척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멸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멸치떼가 형성된 곳이라면 수십 척의 멸치잡이 어선이 몰리고 있다.

특히, 멸치떼는 연안에서 가까운 바다에 몰리는 특성이 있어 조업 중인 어선과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어제인 9일에도 상선이 수시로 오가는 군산항 입구에서 40여척의 멸치잡이 어선이 항로를 막고 있어 출항하던 국제여객선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멸치조업 시기에 증가하는 무허가 조업과 사용금지 그물 사용 여부, 어업구역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특히 통항로를 막고 그물을 훑거나 다른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주민세 이달까지 납부를

군산시는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평생학습리더 아카데미' 운영 시작

군산시와 군산YMCA는 지난 7일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군산에서 활동하는 행복학습매니저와 강사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리더 아카데미-평생학습 서포터즈 스쿨'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행복학습 도시'로 도약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뿌리역할을 하게 될 평생학습리더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군산시 구석구석 평생학습 현장을 찾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생생한 평생학습소식을 홍보하는 역량을 키워주고자 진행되는 것이다.

교육기간은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3회로 진행하며 교육장소는 군산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현장을 찾아가는 실습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행복학습매니저(12명)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에 등록된 평생학습 강사(10명)와 서포터즈 자원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8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운영위원 서재복 교수의 4차산업 시대 자기주도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시작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평생학습서포터즈 홍보전략과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 등 군산시 평생학습현장의 균형적발전과 주민밀착형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lll.gunsan.go.kr)과 군산 YMCA(☎ 446-4122)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